

세계경제포럼 4차산업혁명센터

WEF Issue & Insight

2025 년 3 월 28 일, WEF 4 차산업혁명센터, 경기도 대한민국
센터 웹사이트 : koreago.net

AI, 가능성의 경계를 넘어서려면 (How can we take AI to the edge of possibility?)

* 본 자료는 세계경제포럼이 분석하여 2025년 3월 3일 세계경제포럼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

- 인공지능(AI)은 이미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지만, 그 진정한 변혁적 잠재력은 아직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AI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포용적 기술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 세계경제포럼(WEF)과 비바테크(VivaTech)는 책임 있는 AI 기술 개발을 목표로 '유럽 인공지능 우수센터(CAIE, Centre for AI Excellence)'를 설립했다.

< 주요 내용 >

즉각적 편의성 너머, 시스템 전환 중심의 접근 필요

인공지능(AI)은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싱가포르의 연구소에서는 AI 알고리즘이 암세포를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해 의료진의 진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케냐의 농장에서는 AI 기반 센서가 토양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정밀한 관개 결정을 돕고 있다. 북극에서는 머신러닝 모델이 위성 이미지를 분석해 빙하 변화를 추적하며, 해수면 상승에 대한 조기 경보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AI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인류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 AI에 대한 관심은 기술이 제공하는 즉각적 편의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전환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에서도 기후변화나 보건의료 등 인류 공동의 과제에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논의는 부족했다.

이제는 AI를 단순한 도구로 취급하는 사고에서 벗어날 때다. 사회 전반에 걸쳐 기술, 정책, 조직의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는 '시스템 전환'의 기제로서 AI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AI에 대한 공정한 접근, 시스템 전환을 여는 열쇠

AI의 잠재력을 시스템 전환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평하게 AI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AI는 기존 방식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사회 문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전략적 도구이지만, 그 잠재력이 모두에게 열려 있지 않다면 시스템 전환은 결코 완성될 수 없다. AI가 소수의 국가나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남아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보급을 넘어,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과 더불어 실질적 실행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 민간, 산업, 지역,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AI의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변화의 방향을 공동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AI 접근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AI 교육의 기회 확대, 신뢰 기반의 데이터 공유 체계 구축,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마련이 필수적이다.

또한, 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 형성도 AI의 민주화와 확산을 위한 핵심 조건 중 하나다. AI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과 개발자는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기술을 설계하고 운영하며 지속 가능한 기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CAIE, 책임 있는 AI 전환의 실천 모델

이러한 전환의 방향성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 시도로 세계경제포럼(WEF)과 비바테크(VivaTech)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설립한다고 발표한 '유럽 인공지능 전문 센터(Centre for AI Excellence, 이하 CAIE)'가 있다. 이 센터는 WEF의 '제4차 산업혁명 글로벌 센터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국경을 초월한 연구 협력, ▲AI 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 ▲산업 및 사회 전반에 걸친 책임 있는 AI 도입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CAIE는 기술 패권 경쟁을 지양하고, 전 세계가 함께 만드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과 중심의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데 그 설립 의의가 있다. CAIE는 앞으로 유럽의 정책 방향과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AI 해법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WEF가 주도하는 이니셔티브인 'AI 거버넌스 연합(AI Governance Alliance)'의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크고 다양한 AI 이해관계자 네트워크의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지능형 경제로의 이행, 지금이 전환점

AI를 통한 시스템 전환은 궁극적으로 '지능형 경제(intelligent economy)'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어진다. AI는 생명공학, 양자컴퓨팅, 로봇공학, 공간지능(spatial intelligence) 등 첨단 기술과 융합하며, 보다 진보된 사회 구조를 설계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지능형 경제의 청사진을 그려가는 결정적인 시점에 와 있다.

기술을 어떤 가치관과 사회적 목표를 기준으로 수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AI가 진정한 변화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인류가 그 가능성을 신뢰하고, 함께 실현해 나가려는 집단적 의지를 갖추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혁신이 아니라, 미래

를 설계하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다. AI는 그 움직임의 중심에 서 있다.

끝.